제일모직, 첨단소재 전문기업 도약

케미칼 부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전자소재는 신규 수요처 공략

제일모직이 첨단소재 전문기업으로 제2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황백 제일모직 사장은 "창조형 사업구조를 정착시켜 패션, 케미칼, 전자소재 등 10년 단위의 기업변신을 거듭해온 제일모직의 차세대 성장을 실현하자"면서 2010년 경영방침으로 차세대 성장과 창조가치 실현을 제시했다.

또 3대 실천과제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대비 ▲사업부문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세대 신 수종사업 육성을 내놓았다.

황백 사장은 차세대 성장 조건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리스크 관리를 꼽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율, 유가, 금리 등 3고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이어 업무방식과 조직 문화 등 제일모직의 모든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케미칼 부문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소재 부문은 글로벌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며, 패션부문은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 신 수종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차세대 유망사업에서 제일모직의 첨단소재가 핵심 역할을 하도록 신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백 사장은 "첨단소재와 감성의 크리에이터"라는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면서 "기업변신의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패러다임을 제일모직이 주도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4>